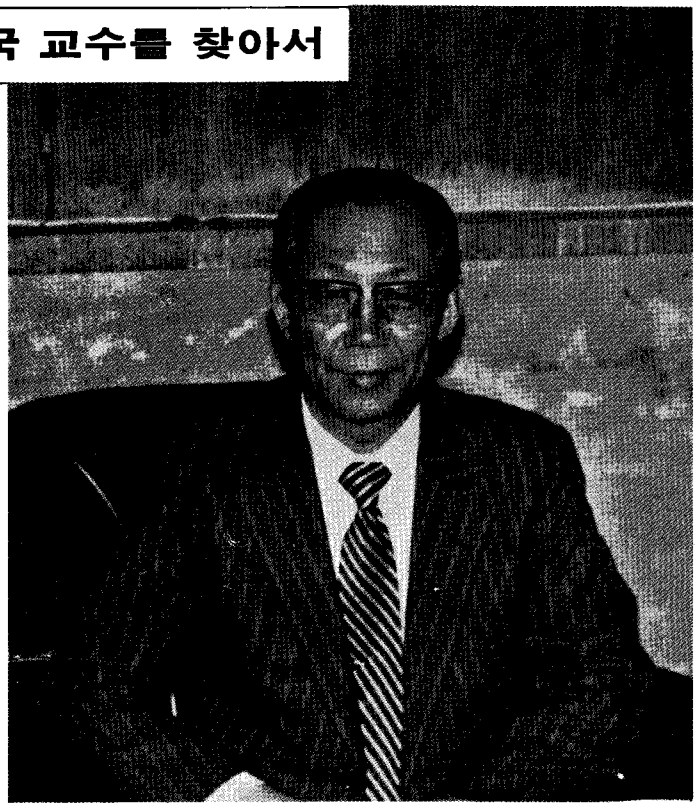
인터뷰 ● 오봉국 교수를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양계산업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즐거울 때는 부인을 찾지만 어려울땐 어머니를 찾는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사실은 우리 모두가 10개월간 살았던 본향이기도 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머니가 그리워지는가 보다.

양계산업이 불안하고 경영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년전의 양계를 그리워하고(그 때 양계인들의 뜨거운 협동정신을 말함). 업계발전을 위한 어떠한 전기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발전사를 보면 크게 20년을 주기로 새로운 장으로 바뀌어 발전해 왔다. 일제(日帝)하의 양계에서 광복후 60년대 중반까지와 6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의 20년간의 근대양계산업으로의 발전 등이며, 이제 다시 계산물(계란, 닭고기)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양계산업의 재정비 등 새로운 변화기를 맞아 불안해 하고 있다. 축산경영학회와 축산학회가 잇따라 양계산업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어 변환기의 양계산업에 대처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지는 60년대 중반기 이후 장안양계친목회에서 가금연구회와 한국가금협회의 산파역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오봉국교수를 만나 보았다.

Q : 10월 6일이 회갑이시라는데 모레(9월 26일) WSPA 아태지역 회의참석차 쿠알라룸풀로 떠나시면 언제나 귀국하시게 됩니까? 또 몇분이 가시는지요?

吳 :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들이 많아 도저히 출국할 입장이 못되지만 이번 WPSA 회의가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추석이 있고하여 혼자 떠나서 3일경 귀국할 예정입니다.

Q : 어려울 때에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와서보니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교수님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씨앗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종계에 대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읍니까?

국산계 개량 포기할 수 없어

吳 : 닭은 사람 식품과 경합되는 가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수한 종계가 도입되어 효율성 높은 닭이 사육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산계는 설땅이 없으니 포기할 것이냐 한다면, 그 답은 분명히 포기할 수 없다 입니다. 닭을 기르는데 기간으로 종계 사료와 방역 등을 들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료 방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육종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질병에 특별히 저항력이 높은 닭을 육종하는 것 등입니다. 육종은 기술(사람), 시설, 자본만 있으면 가능한데 많은 나라들이 성공하고 있읍니다.

2 차대전 이후 60년대 까지는 종계는 대부분 미국의 시장이었는데 70년대에와서는 종계 개량에 성공한 나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불란서의 ISA(Institut de Sélection Animale)와 같이 관과 민이 합작으로 힘을 합해 성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P.B.U. (Poultry Breeders Union)와 화란의 Euribrid 등이 자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을 크게 넓혀가고 있읍니다.

Q : 양계산업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일본을 모델로 일본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일본에서 시행착오까지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람직하기는 EC 양계 선진국의 형태

吳 : 양계산업의 경우에 일본이나 대만형, EC중 화란·덴마크형, 중동의 이스라엘형 등을 모델로 들수 있읍니다. 이들 나라들이 사료자원이 없으면서도 양계산업의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화란이나 덴마크가 수출산업으로 크게 발전시켰는가 하면 중동의 이스라엘은 닭고기를 육류소비량의 80%까지 높이고 있읍니다. 닭고기가 가장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육류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양계산물의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가격의 불안을 항상 안고 있읍니다.

바람직하기는 우리가 두뇌산업을 발전시켜 화란이나 덴마크같은 유형으로 발전시키는것이지만 의식구조, 문화적 배경 등이 이들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작물(作物) 농업이 아니고 동물농업 즉 축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농업하면 축산업을 생각합니다. 또 일찌기 연관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기반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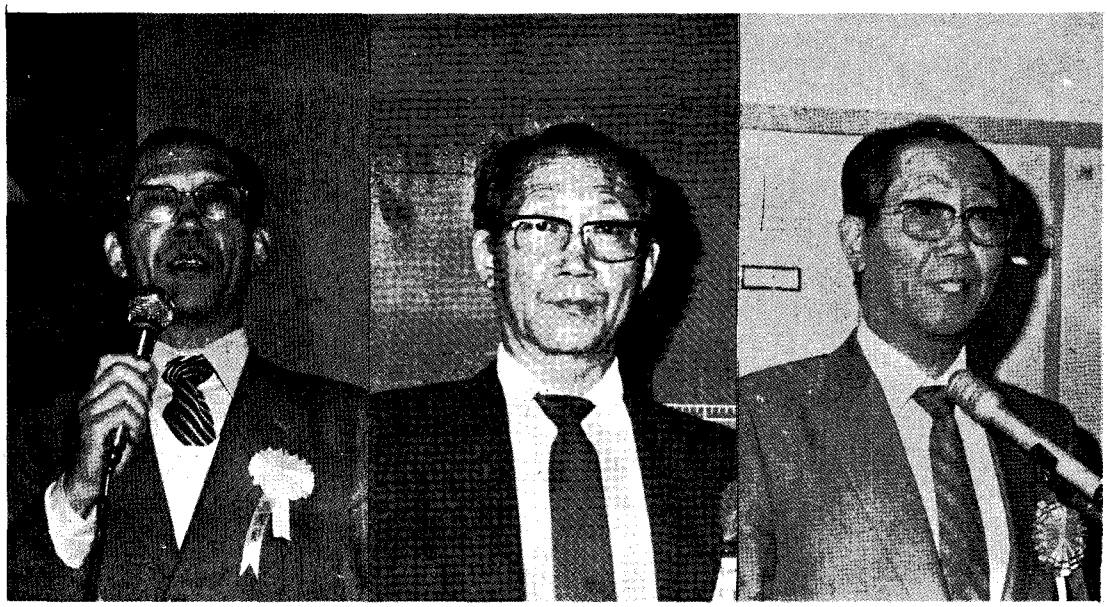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식물산업에서 동물산업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EC 나라들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바탕을 고려해서 EC의 양계선진국형과 중동의 이스라엘형 등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을 절충해서 우리에 맞는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한다

양계가 근대산업으로 발전한지도 20년여이 되었지만 이제껏 눈앞에 떨어진 문제에만 너무 급급하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서양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



진 민족은 멸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벌레처럼 눈앞의 것만 보지말고 새처럼 높이 떠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Q :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우리가 그날 그날 주어진 문제들만 해결하느라 미처 생각치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즐거울 땐 부인을 찾지만 어려울 땐 경륜이 풍부하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아가페) 어머니를 찾는것 같습니다.

최근 계열화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신사회(不信)뿌리 뽑혀야

吳 : 경제체제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로는 가장 좋은 축산경영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70년대 중반부터 계열화를 역설하였지만 잘 안되는 이유로 다음 몇가지를 들수 있읍니다.

첫째 사회적 문화수준 즉 가치관·의식구조에 문제가 있읍니다. 계약에 대한 훈련이 안돼 있고 불신풍조가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한 사회가 계열화 생산 유통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료, 종계, 질병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관련분야들이 발전되어 있어 각 분야별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아직 우리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형편입니다.

세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열화 체제가 추진되어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기업이나 정부는 너무 조급히 서두는 감이 있읍니다.

Q : 최근 수출도 옛날처럼 잘 되지 않는데다 수입개방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읍니다. 정부발표를 보면 89년에는 닭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축산물이 완전 수입개방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개방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비록 닭고기는 개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돼지고기, 통조림 등 일부 가공식품은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바나나 수입시기가 김해지역의 참외 출하시기와 같았기 때문에 참외농사를 짓는 농민의 큰 손해를 본 것이 생각납니다.

좋든 싫든 수입개방은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이지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의 공산품 수출국들이 대부분 농축산물을 수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생산성 더욱 높여야

吳 : 앞으로 수입이 개방되면 닭고기 칠면조고기 등이 양계 산물 중에는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산비가 수출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위 식탁란은 신선한 것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난분(egg pulp)은수입되어 계란가격에 영향을줄것입니다.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서 가장 값싸게 닭고기나 계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다음에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 방법이 예를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Q : 끝으로 가금협회 창립의 산파역을 하시었고 그간 협회 회장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회 발전에 많은 봉사를 하여 오셨는데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계인의 대변기관으로 발전되기를

吳 : 협회의 기능상 협회란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위 향상과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협회는 양계산업의 구심체가 되어야 하는데 업계가 공동체의 식이 결여된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구심체가되어 협회의 기능을 충실히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양계인의 방패가 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부문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들이며 대외적으로도 양계업계를대표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양계인들에게 협회가 이러한 산적한 문제 들을 강력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여줄때 협회가 양계인들의대변기관으로 구심점이 되어 산업이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민간단체의 건전한육성이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협회의 발전에 협조 하여 양계인들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뭉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기자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회갑의 의미가 일생의 한 단계를 보내고 다시 새출발하는 제2의 인생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도 제1의 인생처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 되시라고 양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10월 6일부터 새출발하시는 교수님 내외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노 영한)